

보도시점 : 2024. 12. 13.(금) 06:00 이후(12. 13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12. 12.(목)

한국형 도심항공(K-UAM) 실현,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

- 14일, 고흥 K-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

-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이하 K-UAM, Urban Air Mobility)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2월 14일 고흥에서 ‘K-UAM 그랜드챌린지’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,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.
 - * '24.12.14.(토) 13:00~15:30 / K-UAM 실증단지(전남 고흥) /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, 문체부, 우주항공청, 제주도지사, 고흥군수 및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명 참석
 - K-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·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(주최)·한국항공우주연구원(주관)과 함께 10개 컨소시엄·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*을 진행하고 있다.
 - * 1단계(개활지, 전남 고흥, '23.8~) → 2단계(도심, 수도권, '25~, 1단계 통과 컨소기업 수행)
- 이번 행사는 K-UAM 드림팀 컨소시엄(SKI, 한국공항공사, 한화시스템 등)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S-4 기체가 결합한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(12.7~12.15)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됐다.
 - 실증을 통해 조비 S-4 기체를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K-UAM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·교통관리·버티포트 등 운용기술과 결합하고, 항행설비 미작동 등과 같이 가상으로 구현된 비상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검증하게 된다.
 - 특히, 처음으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활용하는데 의의가 큰 이번 실증·시연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인 UAM에 사회적 관심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1단계 개활지 실증 후 진행할 2단계 도심 구간 중 **아라뱃길** 구간에 구축된 실증 인프라를 검증하는 **예비 실증도 착수(12.12)**했다.
 - 대역기(헬기)를 활용하여 **비행경로 상세 설계부터 실증에 활용될 버티포트 및 통신·감시 장비 등 실증 인프라의 운용성능을 검증**하게 된다.
- 실증을 통해 도출된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**공공의 다양한 UAM 활용**까지 확대하기 위해 ‘**국토부(UAM 총괄)·문체부(관광)·경찰청(치안)·소방청(소방)·산림청(산림관리)**’ 5개 기관 간 **업무협약도 체결(12.13)**했다.
 - 이번 협약으로 **공공수요 창출부터 기술·제도 교류 및 생태계 조성까지 UAM 실현에서 육성 전반에 이르는 협력을 공고히** 하게 됐다.
-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**K-UAM그랜드챌린지**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K-UAM 운용기술을 선보이게 되어 뜻 깊다”고 강조하며,
 - “앞으로도 시장·기술 변화에 **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며 실증사업과 상용화 전략을 기업과 발맞춰 준비해 나갈 계획**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승욱 (044-201-4197)
		담당자 (실증사업)	서기관	서정석 (044-201-4302)
			사무관	김종화 (044-201-4199)
			주무관	양상혁 (044-201-4266)
		담당자 (시연행사)	사무관	김헌태 (044-201-4306)
			주무관	우현주 (044-201-4281)
		담당자 (업무협약)	사무관	양두석 (044-201-4278)
			주무관	신웅재 (044-201-432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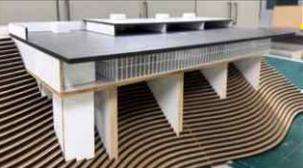
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12.14(토) 13:00~15:30 / K-UAM 실증단지(고흥)
 ※ (주최 / 주관) 국토교통부 / 항공안전기술원
- (참석 범위)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, 문체부, 우주항공청, 지역단체장, UAM팀코리아(산학연) 및 초청 인원 등 약 250명
 ※ SKT, Joby Aviation, 롯데이노베이트, KAI, 한화시스템, GS건설 등

□ 행사 내용

- ① (전시행사) K-UAM 주요 정책 및 걸어온 발자취, 국내 개발 기체인 OPPAV와 KAI 목업 및 UAM 대학생 올림피아드대회 수상작 전시
- ② (비행시연) 국내 우수한 통합운용기술과 해외 UAM 선도기체를 결합하여 통합실증 시나리오에 맞춰 비행시연
- ③ (기술투어) 통합실증 수행 컨소시엄 운용장비 관람, Joby 기체 운용 시스템, 기체 탑승 및 내부환경 관람 등 투어 진행

K-UAM 전시	올림피아드 수상작 전시	비행시연	기술투어
			
주요 소개 및 발자취 등	버티포트 목업 등	통합실증 비행시연	컨소시엄 운용장비 등

□ 비행기체

기체	사진	제원	성능
S4 (美 Joby社 개발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크기 : 11.5m · 유상하중 : 460kg (좌석제외 410kg) · 최대이륙중량 : 2177kg · 순항속도 : 270km / h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속 거리 160km · 최대 속도 320km/h · 최대체공시간 90분

□ **실증사업 개요**

- (목표) 민간 기술개발 지원, 한국형 안전기준 마련
- (주최·주관기관) 국토부(주최)→^{위탁}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주관)
- (실증 항목) ▲기체 안전성 시험, ▲통합운용 안전성 검증(기체·운항-교통관리-버티포트), ▲운용환경소음 측정
 - 정상/비정상* 상황에 따른 실증사업자의 대응방식·절차 검증
 - * 기체 충돌, 통신 단절, 기체고장 비상착륙, 착륙지점 긴급 폐쇄 등을 가상으로 모사
- (단계적 실증) 개활지(1단계) → 수도권 도심(2단계)



□ **1단계 참여기업·컨소 및 일정(총 10개 컨소(기업), 43개社)**

컨소사업 구분	주요 참여기관			1단계 실증현황	
	기체·운항	교통관리	버티포트 운영		
단일분야		로비고스		완료('23.8)	
	볼트라인			완료('23.11)	
	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			완료('24.6)	
		파인브이티		완료('24.8)	
통합운용 분야	대한항공·인천공항공사	대한항공	인천국제공항공사, 대한항공	인천국제공항공사	완료('24.3~4) * 컨소 통합
	현대자동차·KT	현대자동차, 대한항공	KT, 인천국제공항공사	현대건설, 인천국제공항공사	
	롯데	켄코아에비에이션	롯데이노베이트, 위우너스	롯데렌탈, 롯데건설 등	완료('24.6)
	UAM Future팀		LG유플러스	GS건설, 카카오모빌리티	완료('24.10)
	K-UAM 드림팀	SKT, 티맵모빌리티	한국항공공사, 한화시스템, SKT	한국항공공사, 한화시스템	금번 실증
UAMitra	버티, UAMitra, 티웨이항공 등	버티, UAMitra, 포드림	버티, UAMitra, 안단체 등	예정('25.上)	

※ **볼드** : 분야별 주관기관